

# 우리하나되어

제 15권 제 1호

헬로쉽 교회 월보

2007년 1월 7일

##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다

### 크리스마스 이브 뮤지컬

매년 크리스마스를 맞아 헬로쉽교회 유년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펼치는 뮤지컬이 올해로 4년째를 맞이했다. 4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비교적 굵직한 행사로 자리매김을 한 뮤지컬은 참가하는 학생들은 물론 부모들에게도 기대가 되는 자리였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뮤지컬을 통해 학생들에게 바르게 전하고, 또한 학부모들과 나눈

다는 점에서 뜻 깊은 시간이었다.

올해는 어린 소년 지크의 이야기였다. 지크는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이어 양을 돌보는 양치기 소년이었다. 하지만 자신은 양 치는 목자로 살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양을 돌보는 것은 상당히 지루한 일이었으며, 자신은 다른 보람된 일을 하며 살고 싶었다. 마음은 목자가



뮤지컬 '어린양 이야기' 중 한 장면




되길 원하지 않았지만, 현실은 그 날 밤도 여전히 양을 지켜야만 했다. 하지만 그 날 밤 하나님은 지크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 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양떼를 살피야 하는 지크는 그만 잠에 빠지고,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어린양 한 마리가 무리를 벗어나고 만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스노우 플레이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지크는 뒤늦게 스노우플레이크를 찾아 나서는데, 그 길에 천사를 만나 구세주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된다! 그리고 지크는 구유에 잠든 구세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어린 양 스노우플레이크를 찾게 된다. 목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지크,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이 있음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맞추는 지크의 모습으로 뮤지컬은 막을 내린다.

귀여운 유치부 학생들의 찬양으로 시작된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는 수많은 학부모들의 관심 속에서 시작되

었다. 자녀들의 찬양을 비디오와 카메라에 담고자 앞자리를 가득 메우고, 아이들이 등장하면 여기저기서 후레쉬가 터졌다. 또한 뮤지컬에 참석한 유년부, 중고등부 학생들의 공연을 바라보며 부모들은 자녀들의 밝게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맡은 역을 진지하게 소화해내는 모습 속에서 기쁨을 누렸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였다.

김원기 목사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삶이 바뀌었던 지크를 예로 들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물었다.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각자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간다. 예수님은 나의 그러한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오장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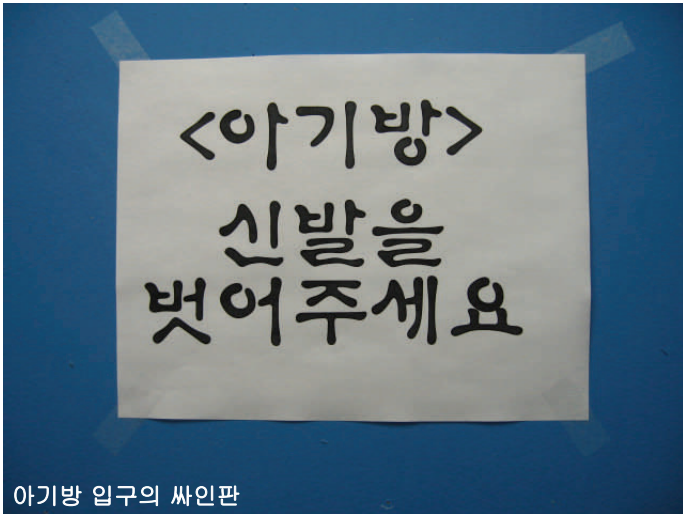








# 버지니아 캠퍼스 유아방 개조



아기방 입구의 싸인판



이곳은 이제는 너무 깨끗하게 꾸며져 있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므로 신발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부 중간에서 본 사진



아기 장난감과 침대



아늑하게 꾸며진 아기방, 벽에 걸려있는 TV화면을 통하여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대쪽(TV화면있는쪽)에서 본 아기방 모습(아기들의 화장실이 두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인태 집사, 김상순 권사, 이복순 권사, 이창숙 권사 (왼쪽부터)

## 하나님께 접붙임을 당하고 나서

황인태

저의 간증을 써 내려가면서 새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원해서도 아니고, 저의 계획이 아닌 그 분의 계획 속에서 저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저는 1982년에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을 오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으며, 조상을 잘 섬겨야 한다는 유교 집안의 장손이었기에 저는 제사 드리는 것에 더 많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자신이 있었던 저에게는 굳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공부에 함께 가자는 아내의 부탁에 한 번은 참석해 주자라는 마음으로 마침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였기에 끝날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가 저는 저의 입장을 단호히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6개월이 된 신혼부부라 열심히 일해서 사업도 하고, 큰 집을 사고, 좋은 차도 몰다가, 한 60살이 넘으면 그때나 하나님을 믿어 보겠습니다”라고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다시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란 뜻이었습니다. 성경공부는 시작이 되었지만 전혀 관심이 없던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한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너무도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개미들이 보이면서 저 역시 개미와 다를 것 없이 생각되었고, 순식간에 창조주에 의해서 그 바쁘게 움직이던 개미들이 힘없이 물로 아니면 불로 다 죽을 수 있다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짧은 시간의 환상이었지만, 그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제 귀에 말씀이 들리면서 인도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공부가 끝나고 인도자의 “마지막으로 통성기도 하고 마칠 것입니다”라는 말에, 저는 어떠한 힘에 의해서인지






평생 처음으로 시키지도 않은 기도를 하겠다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1988년 시카고의 추운 겨울 1월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란 존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실까..’ 성경공부를 마치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시카고의 어두운 길은 1월의 매서운 추위답게 모든 것이 뚝뚝 얼어붙은 날씨였지만, 저의 마음과 몸은 너무도 황홀하고 따뜻하였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10-12)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회개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대에 접붙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로 여러 어려운 과정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체험하게 되

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안수집사 직분을 받으며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과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플로리다 주에 살던 저희는 2001년에 엘리콧시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콧시티에 있는 한국 식품점에서 우연히 집어 든 설교 테이프는 저희 믿음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라는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저와 제 아내는 교회에 대한 정보도 하나 없이 플로리다 주에서 이곳까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힘들었던 과정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 지도자를 찾아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고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마음과 섬기는 자세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주 안에서 베풀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만찬 (12월 17일)





크리스마스 만찬 (12월 17일)







지요한 목사 성경암송 세미나

# 성경 암송의 축복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지요한 목사는 강조한다.”

우리는 제자훈련이나 성경공부 시간 등을 통해 성경 구절을 외우곤 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얼마 가지 않아 그나마 외웠던 몇 구절마저 아득한 기억 속으로 사라지는 경험을 누구나 했을 것이다. 때로는 익숙한 말씀이지 싶은데 어디 있는지 몰라 친구약을 오가며 찾던 기억들도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정확한 위치를 몰라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며 얼버무리던 때도 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통독이라는 목표를 세운다. 올해는 꼭 친구약을 전부 한 번은 통독을 해야지 다짐하면서. 그런데 성경을 한 번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4,000구절 이상을 암송하는 ‘걸어다니는 성경책’ 지요한 목사가 지난 12월 1일과 2일 이틀간 헬로쉽교회를 방문하여 성경 암송 세미나를 가졌다.

지요한 목사가 성경을 암송하게 된 동기는 사실 단순했다. 1995-6년 신학교 재학 시절, 헬로쉽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김원기 목사가 야고보서를 강해하면서 성도들에게 “(야고보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해보라”고 도전하였다. 지요한 목사는 그 도전을 받아들여 3개월 동안 야고보서를 암송했다. 그런데 암송하는 동안 심령의 변화와 더불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고 야고보서에 이어 여러 다른 성경책들을 계속해서 암송해나갔고, 10여년이 지난 오늘 약 4,000구절 이상을 암송할 수 있다.

‘하나님은 왜 자신에게 암송을 하도록 인도하셨을까?’ 하는 질문에 지요한 목사는 ‘온전히 말씀만으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암송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기 시작했다.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지요한 목사는 강조한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


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암송인 것이다. 또한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 역시 암송이다.

암송을 통해 얻게 되는 축복은 무엇일까?

“암송은 씨앗과 같다”고 전하는 지요한 목사는 “암송으로 시작된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여 삶의 충만한 열매로 이어진다. 따라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암송이다”라고 단언한다. 암송을 위해서는 말씀을 오래도록 씹고 또 씹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말씀의 꿀맛을 알게 된다.

또한, 위기를 맞이했을 때 암송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순발력을 제공하며, 생각의 흐름을 바로 잡아주기에 보다 쉽게 염려를 극복하고 강한 담력을 가지게 된다.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5분 더 버티는 사람이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더 버틸 수 있다.”

그런데 역경을 이기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번영의 때에 유혹을 이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역경 속에는 성공의 씨앗이 담겨져 있는 반면, 번영에는 실패와 유혹의 씨앗이 싹트기 때문이다. 특별히 유혹은 내부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말씀을 암송한 사람은 유혹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된다.

암송을 하는 마음 자세에 있어서 잘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임한다면 암송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고 지요한 목사는 도전했다. 

<오장석>



##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만리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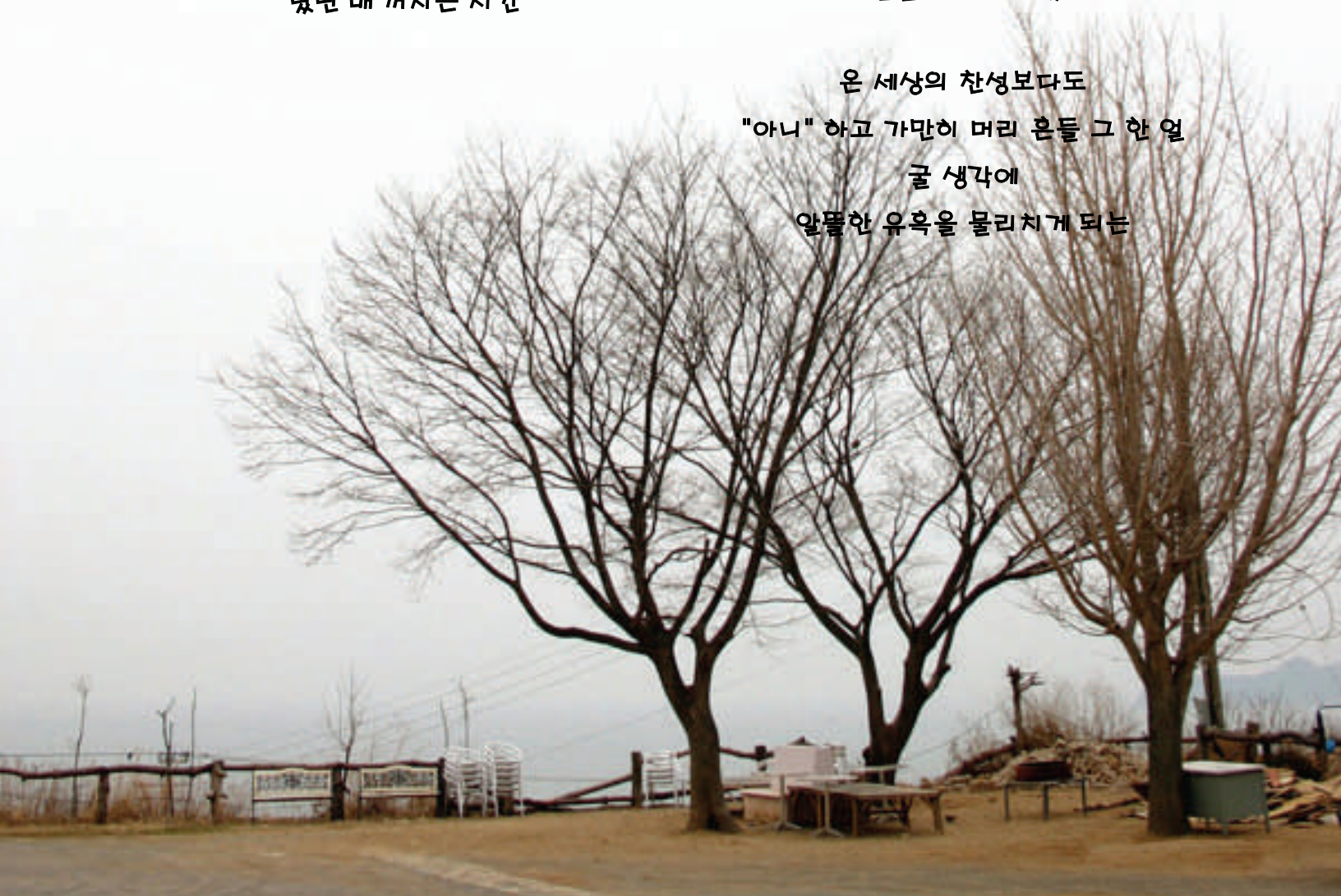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타던 배 깨지는 시간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 두거라" 일러 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하며  
빙긔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잎  
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 여호와 라파

소선영

평범치 못한 가계의 흐르는 최악의 사슬 속에서  
저는 몇 년 동안 간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의 어두움 가운데서  
희망이 없이 속신이 점점 퇴폐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어느 가을, 따갑게 지는 햇볕 사이로  
여호와 하나님께선 의원으로서 저에게 찾아 오셔서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칠순의 옆집 할머니 전도를 통하셔...

저는 준비해 둔 진료비도 없고  
의원으로서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날밤 그 병원이라고 생각되는 예배당을 따라 갈 때에도  
맨발로 멀치감치 할머니 뒤를 좇아 갔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의사에게 지치고 피곤해서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나를 보이려고...

할머니께선 그 곳에 가거든 다만 “내 병을 낫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라고 하라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십자가 뿐.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다다미가 깔린 예배당이었습니다.  
맨발로, 빈 손으로 가서 구석진 곳에서 무릎 꿇기만 하기를 서너 차례...

하루에 보통 세 네번씩 전신 경련을 할 정도로 심했던 증상이  
언제 없어진 지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의사이신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계속 불러가며 요청하였습니다.(할렐루야!)

치유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뿌리 내려 끊어지지 않은 가계의 흐름 속에  
상처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저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셔 주시고

예수님의 나물이 되고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천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며  
필요를 따라 날마다 삶 속에서 새로운 영을 채워주심으로  
은혜와 감사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 노숙자와 함께 한 하루

진정숙

언제나 느끼는 일이지만 경험을 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스럽게 느낀다. 시온회가 주최하는 '노숙자와 사랑 나누기' 행사도 금년 들어 5년째가 되고 보니 괜히 컵을 넉넉히 샀는지, 치킨은 모두에게 나누어주기에 충분하게 주문했나, 장갑, 목도리 양말같은 일상 용품은 넉넉하냐는 등 일은 안하면서 안달만하는 마누라의 노파심도 금년에는 통 필요 없을 정도로 진철수씨의 기획, 조직, 실행 솜씨도 자못 익숙해졌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걱정하던 날씨도 일기예보로 '쾌청'일 것이라고 확인되었다. 거기다가 12월에 걸맞지도 않게 기온이 최고 50도까지 간다니 금상첨화다. 해나고 따뜻한 날씨를 주옵소서,하고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사실 염치가 없었다. 이 기도는 순전히 급식 행사를 하는 우리를 위한 것이지 늘 한테서 살아야 하는 노숙자들에게는 날씨가 오늘 따뜻하든지 내일 더 따뜻하든지

무슨 큰 차이가 있겠나 싶어서다.

조지아 아베뉴에서 한국인 황씨가 경영하는 텔리에 맞추어놓았던 닭 튀김과 치킨 누들 수프 (Chicken Noodle Soup) 을 찾으러 가보니 좋은 일에 쓸 거라고 해서 생각보다도 더 많이 만들어 놓았고, 수프도 교회에서 만든다고는 했지만 혹시 몰라서 작은 통으로 하나 해 달라고 했는데 같은 값에 제일 큰 통에 하나 가득일 뿐 아니라 건더기도 결죽할 정도로 많이 넣어 먹음직하게 만들었고, 혹시라도 잊지러지지 않게 잘 포장하여 차에까지 실어 주었다.

워싱턴 DC로 가려면 언제나 긴장을 하고 약간 신경이 쓰이는 것 같은 남편이지만 토요일인데도 교통량이 꽤 많은 길을 어디로 어떻게 돌았는지 별로 지체 없이 급식장인 McPherson Square에 무사히 다다랐다. 무심이 공원 쪽을 살펴보니 노숙자 비슷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





는다. 잔치를 차려놓고 대접할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 앞섰다. 일주일 전 헬로쉽교회에서 나와 급식할 것이라는 전단까지 만들어 돌렸는데 웬 일인가 싶어 슬그머니 걱정이 앞섰다. 아직 주차할 자리를 찾지 못해 두리번거리는 동안 목을 빼고 자세히보니 나무와, 옆에 세운 큰 차들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 사실은 이미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미국인 교회에서 나와 미리 상자에 담은 도시락

과 비닐봉지에 담은 선물꾸러미를 나누어주고 있어 모두 거기에 몰려가 있는 것이었다.

주차할 못하니 나는 정차하고 있는 차에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 차에 우뚝하니 앉아 있으려니 무료해지기 시작해 밖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마침 반들 반들 왁스칠을 잘 한 자동차 한 대가 내 앞으로 비집고 들어온다. 한 삼십대가 될까 말까 한 젊은이 둘이 내리더니 급식장소 쪽으로 간다. 나는 지금 급식하고 있는 다른 교회에서 온 일행인데 늦게 도착했나보다 하고 멋대로 단정해 버리고 있었더니 얼마 안 있어 이들은 손에 각각 노숙자가 받는 선물 봉지와 도시락까지 챙겨서 들고 마치 큰 승리나 거둔 사람들 모양 희희낙락하며 황하고 떠나버렸다. 노숙자들의 뒤통을 가로채는 사람들 같아 보기에 그리 좋지 않았다.

마침 자리가 나서 주차가 되는 바람에 공원 안으로 가보니 현장에는 이미 시온회 회장인 이호영 집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회원들이 미리 와 급식 테이블을 펴 놓기 시작했고, 이인영 목사님과 정평회 장로님 그리고 한마음회에서도 젊은 여자 회원들이 세 분이나 와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급식작업에 가담하겠다고 나섰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테이블 옆으로 긴 줄이 형성되어갔다. 아무리 다른 단체에서 음식을 나누어주어도 헬로쉽 교회에서 온다면 노숙자들은 다른 단체가 주는 음식은 다음 끼니를 때우려고 받아놓기만 하지 푸라이



치킨과 더운 수프를 주는 우리 음식을 먹기 얼굴도 잘 씻고 옷차림도 별로 남루하지 않다. 여러 단체들이 와서 옷들을 나누어주니까 아마 팬츠는 옷도 한 벌씩 차례가 지나보다. 튀긴 닭고기를 좋아하는 이들은 우리 테이블에서 나는 닭튀김 냄새에 끌려서 걸음을 재촉하며 몰려오고 있다. 기웃기웃 닭고기 쟁반으로 눈길이 쏠린다. 그들의 눈빛은 기대와 식욕으로 빛나고 있다. 열두시는 안 되었지만 이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아 좀 이르지만 그냥 나누어 주기로 했다.

닭 튀김에 으깬 감자를 담은 접시와 큰 용기에 담은 수프 그리고 물 한 병씩을 받아들고 가는 노숙자들의 얼굴에는 '우선 한끼는 잘 먹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번져나는 것 같았다. 각기 적당한 자리에가 앉아서 순식간에 후딱 치우고는 그 길로 또 급식 테이블로 몰려왔다. 이번에는 다른 것은 그만 두고 닭고기만 달라고 했다. 우리는 아무 말 안하고 주기로 했다. 어떤 사람은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도 온다. 그러나 이왕 주기로 한 것을 핀잔주지 말고 주자고 결정한 우리들은 잠자코 그냥 나누어주었다.

이제 계획했던 대로 크리스마스 캐롤만 부르면 성탄 잔치는 어우러질 터인데 캐롤을 불러주겠다고 약속한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지 않는다. 공원이 주차장을 나도 모르게 살피는 중 우리 교회 밴 하나가 근접해 도는 것이 눈에 띄었다. 김모세 목사님이 인솔하는 Timothy 반이 도착한 것이다. 이들은 내리자마자 곧 성탄 찬송을 부르





도매상을 하시는 김원배 집사님이 해마다 후원하는 털모자, 목도리 장갑, 양말, T-셔츠 등 후한 선물로 풍성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선물 중에는 현임 권사님이 틈틈이 손수 짠 털 마플러 여러 개가 애교스럽게 구색을 맞추어주었다.

새로 받은 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목에 감은 그들의 얼굴에 어린애같이 순진 무구한 웃음이 피어오른다. 다들 먹고난 광장에는 부스러기가 열두 광주리는

기 시작했다. 맑고 환한 햇살이 비치는 광장에 어린 소년들의 노래 소리는 너무도 마음을 푸근하게 풀어주었다. 애매고 활력이 넘치는 이들의 노래 소리는 광장 안에 힘차게 퍼져나갔다. 노숙자들도 더러 합창을 하는 것이 보였다. 노래 소리에 맞추어 어깨춤을 추는 사람, 댄스 스텝을 밟는 사람도 있었다. 잠시나마 시름을 잊는 순간인 것 같아 보였다.

그러는 중 이호영 집사님이 이른 새벽에 플로리다 마켓까지 가서 구입해 온 닭고기와 여러 가지 야채 그리고 수제비를 방불케하는 파스타를 부인 이옥나 집사님과 이복순 권사님이 (시온회는 아니지만 적극 협조해 주셨다) 정성껏 만들어 식지 말라고 보온용기에까지 담아온 스프, 거기에 햄과 치즈를 넣어 만든 갠드위치까지 곁들여 나누어주는 손길도 자랑스럽고 흐뭇했다. 더구나 새로 도착한 뜨거운 스프는 인기가 대단했다. 50도를 예보했지만 아직 햇살이 덜 퍼져 그런지 바람이 소매 속으로 스며드는 쌀쌀한 날씨여서 스프를 퍼주는 나도 한 모금 마시고 싶을 정도인데 오랫동안 한테에 있었던 노숙자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것 같았다.


급식이 뜸해질 무렵에 의류 나누어주기를 시작했다. 미리 퍼놓으면 허둥지둥 달려오느라 음식을 제대로 못 먹을까 염려하는 시온회 회원 다운 배려다. 교회에서 몇 주에 걸쳐 수집한 의류는 주로 세탁소를 하시는 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셔서 상당히 많은 옷들이 모였다. 그리고

안 되었지만 쓰레기가 상당히 널려 있어 우리들이 줍기 시작했더니 몇몇 노숙자들이 서슴치않고 가담해 McPherson Square는 말끔히 치워졌고 돌아서는 우리들의 마음도 흡족했다. 끝으로 우리는 노숙자들과 팔을 얹어 사슬을 만들어 기도하고 서로 사랑의 나눔을 다짐하며 헤어졌다. 다만 노숙자들과 시간을 같이 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던 것이 좀 아쉬웠다.

워싱턴 DC에서 '평화나눔공동체'를 설립하여 8년이 넘게 노숙자 돕기 사업을 펴오신 최상진 목사님은 금년에도 빠짐없이 나와서 우리들을 격려해 주셨고 손수 집필하신 시집도 한 권 나누어주셨다.

그 시집속에서-

"노숙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 1위:1불(구걸할 때) 2위:치킨 3위:소금4위:설탕 5위:후추가루 6위:양말 7위:속옷 8위:티셔츠 9위:콜라10위:생수 11위:담요 12위:집 13위:모자 14위:장갑 15위:성경책 .....100위: 공책 및 볼펜"

그래서 그런지 나는 쓰레기통 옆에 노숙자들이 버린 듯 싶은 휴대용 휴지 3개와 새 볼펜 두 개를 주워올 수 있었다. 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얻은 것도 많았던 하루였다. 




무릎선교사 여러분,

그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는 지난 몇 달간도 바쁘게 지냈습니다, 이번에 평생 처음으로 병원 신세를 진 것 같습니다, 헬리코 박터균에 의한 급성 위염과 위궤양으로 육체의 고통이 무엇인지도 조금은 경험한 것 같습니다, 약을 먹고 음식 조절로 지금은 훨씬 나아졌고, 체중도 좀 줄어 가볍고 좋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를 맘대로 못 마시는 것이 가장 힘이 들었는데 미주에서 세미나 차 오신 목사님들의 배려로 차를 배워 요즘은 커피 대신 차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선교지 생활이 이제는 좀 익숙하다 싶을 때에 이런 일들이 생기니 절대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년에 한 번씩 모이는 졸업생들의 Home-Coming 이 11월 말에 있었습니다, 사마르섬 곳곳에 흩어져 힘든 상황 속에서 사역하던 '우리의 아이들' 이 씨캅센터에 돌아와 운동회도 하고, 세미나를 통해 재충전받고, 또 배불리 먹고 영육간의 쉼을 얻는 1주일 간의 행사입니다, 올해는 미주에서 Victor Kim 목사님과 David Yang 목사님이 오셔서 아이들을 도전하시고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해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아이들이 모일 때마다 저희 부부는 마음이 뿌듯해 집니다, 나중에 지혜와 노아가 결혼한 후 명절이라 집에 돌아오면 아마 이런 기분이 들꺼라고 아내는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힘든 곳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또 돌려 보낼 때는 마음이 짙하기도 합니다,

12월 중순에 수빅에서 GP/필리핀의 분기별 모임이 있어 근 20시간 운전을 하고 올라 왔습니다, 루손섬과 사마르섬을 잇는 웨리를 한 10분 사이에 놓쳐 다음번 배까지 5시간을 기다리며, 무엇 한가지 정해진대로 법칙대로 하지 않는 이곳의 시스템이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아직도 느긋하게 참고 견디어내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선교사의 싸움은 결국 제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치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멀고 힘든 길이었지만, 3개월에 한 번씩 모이는 이 시간이 좋습니다, 항상 같은 마음을 모두 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양성 안에서 GP 라는 공동체 안에 묶여져 있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일년도 부족한 사람들을 주의 손 안에 올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의 계절과 새해에도 무릎선교사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에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큰 사랑이 계속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승봉/유영선 지혜와 노아 드림





선교지 생활 10년 동안 내가 제일 걱정하던 두가지 사건이 요즘 한꺼번에 생기고 말았다.

응급 치료상황이 첫째요, 둘째가 치안문제이다, 믿을만한 병원이 없는 지역이라 극성스런 아들 노아가 어려서 한창 장난을 칠 때는 자주 조마조마한 맘을 다스려야했다, 아이들이 다치면서 크는 것은 보통이지만 혹시라도 선교지의 부족한 의료시설 때문에 손을 쓸 수 없었다면 평생 그 마음의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까였고, 더 큰 문제는 내가 간호사라는 데도 있다, 미국의 의료시설을 오래 경험한터라 미국서라면 이렇게 했을 터인데 라는 생각과 비교함은 이 곳 병원이나 의사들을 불신하게 되었고...그런 나를 아신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계셔서 아이들도 크게 아픈 적은 없었고, 웬만하면 집에서 치료하다보니 10년 동안 한번도 아이들을 이곳 병원이나 의사에게 데리고 간 적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집을 떠난 아이들이 아니고, 자주 골골하는 나도 아니고, 가장 건강하다고 믿었던 남편에게서 생겼다.

아침부터 속이 불편하다면 남편이 점심도 굶고, 자리에 눕더니 오후 2시쯤 지나자 배를 움켜쥐고 땀을 뻘뻘 흘리길래 안되겠다 싶어 스태프를 불러 병원으로 가는데...차 안에서 수건을 입에 물고 뒤트는 남편의 모습이 꼭 해산하는 임산부 같았고, 2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본 남편의 그런 모습은 나를 너무도 두렵게 하였다, 병원까지 15분 거리에 어찌면 여기서 과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 것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여 링게를 꼰고 위궤양인 듯하다며 진통제와 위산제를 놓고 혹시 담낭염일까 하여 항생제를 시작하고...병원이란 곳이 진단을 할 수 있는 CT 나 초음파가 없어 그저 의사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었다, 밤이 되어서야 남편의 고통은 참을 만하다고 하였고 이들이나 있어야 초음파를 찍고 그것을 읽을 수 있는 Radiologist 가 우리 동네를 온다는 것이었다, 150만이 산다는 사마르 섬에 X-Ray나 초음파를 읽을 수 있는 Radiologist는 한 사람뿐인데 까딸만이라는 도시에 살면서 우리 시에는 일 주일에 두 번 정도 들른다는 것이었다, 그나마 이들이나 기다리고 기다린 의사는 느끼한 기분이 들게하는 중년의 동성연애자였다, 구닥다리 휴대용 초음파기계를 가지고 남편의 배를 이곳저곳 만져대니 괜히 내 기분만 찜찜한데 한 2-3분 그러더니 담낭염이라는 것이라고 진단을 써주길래 집에 와 인터넷을 뒤져보니 보통사람이 걸리는 병이 아니고 에이즈 등 심한 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제 2의적으로 생기는 병명이었다, 어쨌든 항생제를 투여하니 맘은 좀 놓였고 통증도 좀 가라앉는 듯하여 퇴원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속이 거북하고 가끔 아프다는 것이다, 다시 안되겠다 싶어 급히 다음번 비행기표를 구해 마닐라로 나가 큰 병원을 찾았다, 뉴저지에서 20년이나 개업하다 왔다는 내과의는 환자를 다루는 품이 미국병원에 왔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CT 촬영을 하자 위벽이 두꺼워보이는 내시경을 하자고 했고, 친절환 소화기관 전문의는 내시경을 하는 동안 나를 들어오게 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다, 새로 생기기 시작한 허연 위궤양이 곳곳의 스크린을 통해 보였다, 의사의 말이 많이 아팠을 것이라고 했다, 헬리코박터로 인한 급성 위염과 위궤양으로 진단은 나오고 약을 먹기 시작한 이들이 지나자 훨씬 나아지기 시작했다, 아프다고 할 때 금방 마닐라로 데리고 나올걸 괜히 고생만 시켰나 하는 후회가 막심했지만 돈 10불이 없어 아파도 동네 병원마저도 쉽게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데, 아프다 하여 금방 비행기 타고 마닐라로 나가기에는 이들에게 눈치가 보이는 것이다, 다행히 여기서 엉터리 의사가 잘못 진단하여 고생하다 나갔으니 조금은 덜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했다.

또 한가지 사건은 이 동네의 제일 큰 부자이자 우리의 옛 집주인인 인포이 찬씨의 강도유괴 사건이다, 몇 십년을 이곳에서 산 사람들도 처음 겪는 일이라 온 시내가 발칵 뒤집혔다, 4명의 총을 든 강도에게 돈을 다 내어주고도 차에 실려 끌려다니다 살해 당하지 않고 풀려난 것은 기적이라고 했다, 정치적인 살인, 유괴는 흔한 일이지만 이런 일이 우리 시에서는 처음 있는 사건이었다, 이 지역의 중국계 상인들 세계가 공포에 질리고 중국계열로 판단되기 쉬운 우리에게도 조심하라는 전화와 조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인포이는 이곳에서 우리가 친구라고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이다 보니 남편과 나도 많이 놀라 그 일 후로는 전과 달리 방문을 꼭 잠가야 잠이 든다, 총을 사야 된다는 사람도 많지만 남편은 총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더니 도버맨이란 사냥개를 한마리 파글로반이라는 큰 도시의 Breeder에게서 사온 것이다, 어찌 개가 우리를 지킬까마는 그래도 준비해야 할 것은 준비해야 한다는 남편의 주장이다, 한 10년쯤 살아 온 선교지의 삶이 이제는 좀 편하다 싶을만 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보니 지난 10년 고비고비를 넘기며 살아 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요 지킴이었단 생각이 든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겨야 할 지 알 수는 없지만 가끔은 그 무섭고 떨리는 상황속에서 우리의 파수꾼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본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 다,(시 127:1)







중고등부 수양회 (12월 28일 ~ 31일)





# 인도네시아에서

이요셉, 예임 선교사

이웃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인지 외국인에 대해 심할 정도로 바가지를 씌운다든지 또는 돈을 빌리러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액수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주는 셈치고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온 이유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러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돈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편,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모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지만 저희는 이사 알마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적인 부자입니다. 그러나 이곳 이웃들은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 가난에 허덕이고 그들의 방법으로 신을 만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라마단이 끝나고 'Idul Fitri(르바란)' 축제 기간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무슬림들은 한 달간 해가 떠있는 낮 동안 (오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무 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는 라마단이라는 이슬람의 아주 중요한 종교행사를 가집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면 이슬람 회당에서 일어나 밤 먹으라고 깨우는 소리를 시작으로 새벽 4시 기도 시간까

지 쉬지 않고 확정기를 통해 외칩니다. 4시 이후에 음식, 물, 담배 등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금식을 하며 오후 6시가 되면 먹기 시작합니다. 오후에 대부분의 식당들과 음식을 파는 곳은 거의 문을 닫고 저녁에만 장사를 하지요. 오후 5시 반 정도 되면 음식을 파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들떠 있기도 하구요. 하루 종일 굶은 후 음식을 먹게 되고 오늘 하루도 해 내었다는 자신감과 기쁨이 함께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저녁 7시면 마을의 회당에서 매일 집회를 가지고 이 기간 동안 자신들의 종교 의식을 지키며 신을 만나기 위해 노력합니다. 심지어 TV에서도 평소에 전혀 이슬람 신자 같지 않은 젊은 연예인들도 이 기간에는 종교복장을 입고 아주 경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은 아주 형식적인 것 같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몰래 음식을 먹는 것을 목격하곤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맥도날드 같은 곳에서는 유리창에 커튼을 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는 손님들을 위해서지요. 안을 들여다보면 지르밤 (이곳 무슬림 여성들이 머리에 감싸는 천)을 쓰고 있는 여자들도 여럿 있습니다. 라마단 금식은 아주 어렸

을 때부터 모든 가족과 이웃들이 해오던 종교적 습관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곳 사람들과 같이 낮 동안 금식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들과는 다른 목적이지만요. 이웃들과 함께 동참함으로써 더욱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이들과 같은 심정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배고픔의 고통이 올 때 이곳 사람들을 위해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고 제가 더 익숙해진다면 라마단 금식을 통해 절대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Idul Fitri (르바란)이라는 축제의 시간을 라마단이 끝나고 1주일 정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추석과 같이 흠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명절을 즐깁니다. 이웃들끼리도 그동안 서로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고 격려하고 덕담을 나눕니다. 저희 가정도 집 주인 집 앞 와룽 (구멍가게) 주인, 저희 집 헬퍼의 집을 방문 하였습니다. 이곳 전통 옷을 입고 조그마한 선물을 들고 방문하여 모여 있는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음식을 먹은 후 돌아갈 때는 간단한 음식을 싸 주어서 들고 왔습니다. 우리의 추석 혹은 설의 분위기와 너무나 흡사하였습니다.




언어공부의 한 Unit 인 'Idul Fitri'이 바로 전에 끝났습니다. Unit 2를 공부하는 동안 갑자기 더 어려워지고 새로운 단어들이 많아져서 힘들기는 하였지만 저희의 언어가 조금씩 진보하는 것을 느끼며 감사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지금 언어를 배우는 동안 공부하며 노력하는 자체가 사역이라 생각하고 한 단어 한 단어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Unit 3을 공부하고 있는데 점점 더 고급스러운 표현들을 배우면서 한계를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곳 사람들과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오토바이를 장만하였습니다. 집에서 언어학교를 가는데 3번의 양콧을 타고, 또 생필품을 사러 슈퍼에 가기 위해서는 2-3번의 양콧을 타야 하기 때문에 큰 맘 먹고 오토바이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오토바이가 정말 많습니다. 서민들의 발 역할을 하며 오토바이 한 대에 한 가족 4명 정도가 타고 다니는 것은 보통입니다. 저희 역시 저희 가족 4명이 함께 종종 탑니다. 길이 자주 막히고 오토바이와 차가 함께 엉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오토바이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전 운전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진은 10월 한 달간 학교에서 독서의 달이어서 정말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영어로 듣고 말하는 것은 어느정도 하는데 읽고 쓰는 것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매일 책 2권 이상 읽고, 또 1권씩 쓰는 것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읽는 속도도 늘고 어휘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일 책을 읽고 쓰는 그리고 독후감 쓰는 것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제법 말도 말이 늘었고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인도네시아어, 영어)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는지 외국어가 들리면 짜증을 내고 한국말이 나오는 만화영화만을 찾네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종종 잠이 들어서 긴장하게 만들기도 하구요.

2달간의 언어공부를 통해 아주 조금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돌아서면 까먹기 일수인 상황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은 사역이 공부이기에 잘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고가는 2시간과 또 4시간의 언어수업을 하며 서로 번갈아 6시간씩을 쓰고 나면, 나머지 식사준비와 아이 돌보는 시간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다입니다. 매일의 숙제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왜 이리 시간은 없는지요, 그리고 정말로 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매일 필요합니다. 



# 순식간에 만들어진 협곡

오장석



아리조나 주 북부에 위치한 그랜드 캐니언은 보는 이로 하여금 경탄을 자아내게 하는 웅장한 절벽이 광대하게 펼쳐진, 세계적으로 뛰어난 계곡이다. 계곡의 길이는 277마일에 이르며, 깊이는 1마일, 폭은 4-18마일에 달한다.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어져 왔다. 이 이론은 1869년 강을 따라 여행을 했던 지질학자 ‘존 파월(John Powell)’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그는 ‘동일과정설’을 믿는 사람이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일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수 억년에 걸쳐 그랜드 캐니언이 형성되었다고 추정하였으나, 1930-40년 대에 들어가서는 약 4천만년으로 줄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랜드 캐니언의 연대는 훨씬 더 젊다는 증거들이 점점 더 쌓이게 되었고, 1964년에는 1천만년 이내로 단축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줄어도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그러나 반드시 대답되어야 할 문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강에 의해서 수 백만년 동안 침식되어졌다면 강 하류에 퇴적물이 쌓여 있어야 하는데 그 어디에도 퇴적물의 흔적이 전혀 없다.

1964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랜드 캐니언의 서쪽 끝을 연구해왔던 여러 지질학자들이 모여 검토를 했는데, 강에 의한 침식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과서에는 이 이론이 여전히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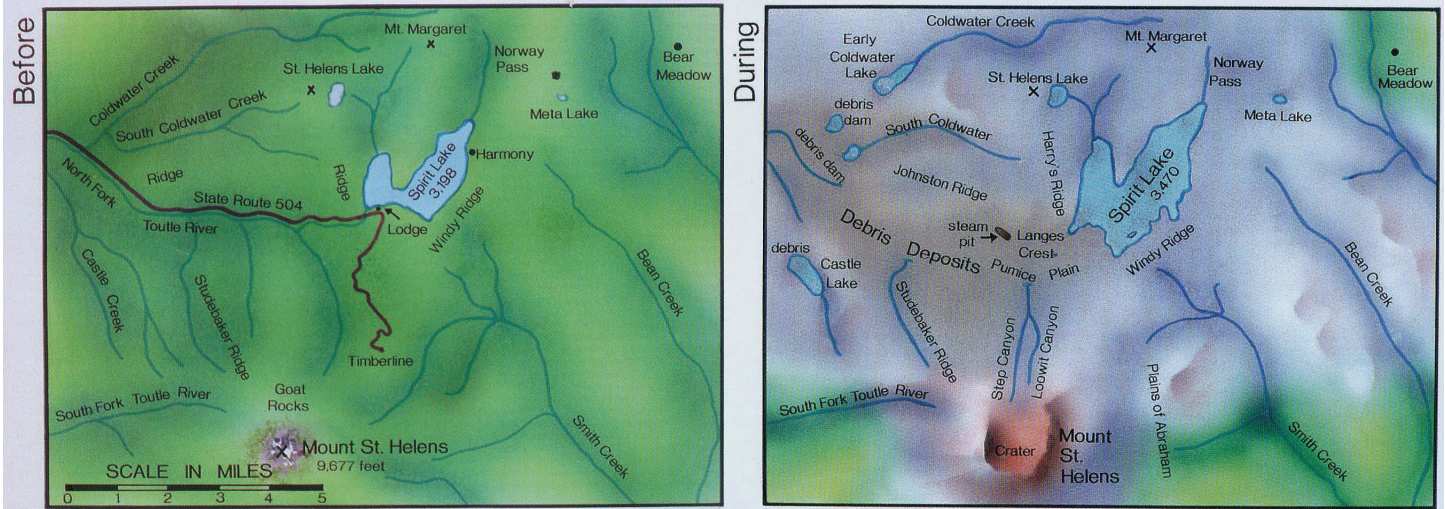
한편, 캐니언이 형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증거가 헬렌산 화산 폭발에서 관찰되었다.



그랜드 캐니언을 가로지르는 콜로라도 강

그렇다면 이렇게 웅장한 그랜드 캐니언은 언제, 어떻게 생겼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랜드 캐니언을 가로 질러 흐르는 콜로라도 강에 의해 오랜 세월을 걸쳐 천천히 파여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물의 힘이 오랜 시간 작용하였을 때, 얼마나 커다란 침식력을





헬렌산 폭발 이전과 이후 지형의 차이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왼쪽) 폭발 이전으로 강의 위치들을 표시 (오른쪽) 폭발 이후 화산재와 분출물들이 쌓여 일부 강들이 사라지거나 위치가 바뀌고, 새로운 호수들이 생겨났다.

1980년 5월 18일에 있었던 헬렌산 폭발로 인해 화산재와 분출물이 헬렌산 북쪽 ‘터틀 강 (Toutle river)’ 유역의 ‘노스 포크(North fork)’에 쌓이면서 터틀 강이 막혀버린것이다.

는 하천도 생겨났다. 다시 말해, 강에 의한 침식으로 협곡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협곡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이 생겨난것이다!

이 때 만들어진 협곡은 그랜드 캐년의 1/40 크

그 후 약 2년이 지난 1982년 3월 19일, 다시 헬



1982년 3월 19일, 폭발과 더불어 산 정상의 얼음이 녹아 내리면서 진흙흐름을 만들어내었다.

렌산이 폭발하면서 분화구 주변의 두꺼운 얼음이 녹아내렸다. 이 녹은 물이 흙과 섞여 거대한 진흙흐름을 만들어냈는데, 이 진흙흐름이 막혔던 터틀강 유역을 지나면서 깊이 140피트의 협곡을 순식간에 이루어냈다. 협곡이 만들어진 후 협곡 아래로 흐르




진흙흐름이 순식간에 만들어낸 협곡과 협곡 아래의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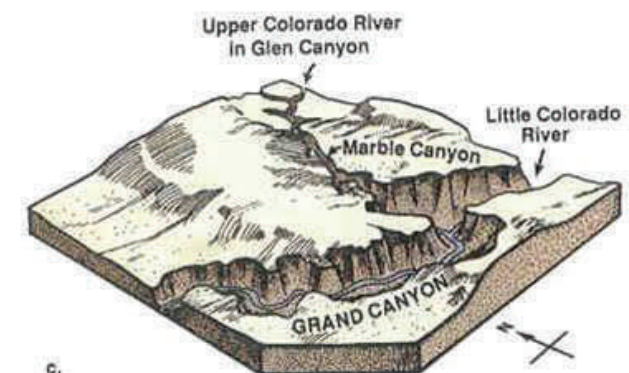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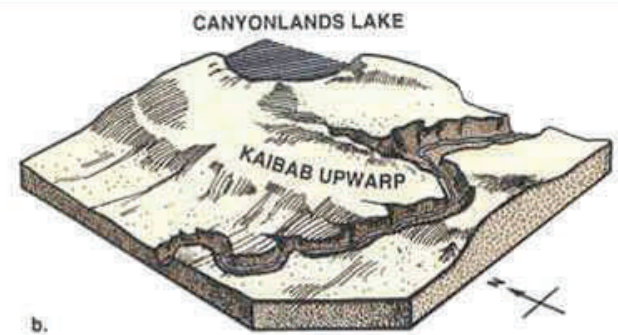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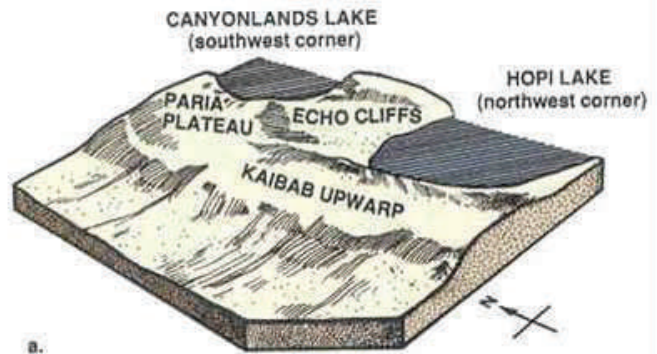
질학자인 ‘조지 빌링슬리(George Billingsley)’는 “그랜드 캐년의 침식은 그랜드 캐년의 동부 근처에 있었던 작은 호수의 홍수에 의해서 시작되었을 수 있다는 정황적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0여년간 ‘오랜 시간’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 했으나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멀어져가는 듯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아닌 ‘사건’으로 접근하면 놀랍게도 단순하지만, 더 쉽게 이해되어진다. 그랜드 캐년의 형성 또한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 이후 일어난 지구 지형의 재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로, 침식이 매우 빠르게 발생되었다는 관측이 없이 현재의 모습으로만 판단한다면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캐년이 만들어졌다고 여겼을 것이다. 현재의 지층과 지형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다는 ‘동일과정설’을 믿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그랜드 캐년이 강에 의한 침식으로 형성되었다는 이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이후, 그랜드 캐년의 형성을 설명할 여러 이론들이 나왔지만 분명하게 대체된 것은 현재 없다. 그런데 여러 이론들 중 ‘댐붕괴 이론’이 있다. 이미 헬렌산에서 관찰된 것과 같이, 그랜드 캐년은 노아 홍수 이후 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대륙에 갇혀 있던 엄청난 물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며 격변적으로 파여졌다는 이론이다. 몇몇 지질학자들과 창조론자들은 이 이론이 그랜드 캐년의 기원에 대한 바른 설명이라고 여기는 반면,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은 이 이론을 거부하고 있다. 왜냐하면 댐붕괴 이론이 오랜 시간이라는 동일과정설이 아닌 대격변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물론 댐붕괴 이론을 지지하는 지질학자들은 노아 홍수가 아닌 국지적인 작은 홍수를 인정할 뿐이다.

지난 2000년 9월 30일자 ‘사이언스 뉴스 잡지’는 일부 지질학자들이 그랜드 캐년은 빠르게 흐르는 물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그랜드 캐년의 연대가 오래되지 않고 격변적으로(즉, 어떤 커다란 사건을 통해) 파여졌음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 지질조사소의 지



‘댐붕괴 이론’ (내용은 옆의 본문 참조)



# Thank you very much!!!



특수사역부(장애인사역부)에서 있었던 크리스마스 만찬에 많은 분들이 오셨었습니다.

장애우와 장애아동, 그리고 가족들, 장애아동반 교사, 차량 사역자들께서 메릴랜드는 물론 버지니아 캠퍼스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주신 저녁식사 후에 장애아동들을 중심으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지난 일 년 동안의 야외활동인 Snow tubing, Pumpkin picking, 예배 찬양, 성경공부하는 모습을 DVD로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베풀어 주신 정성과 사랑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

가오는 성탄절과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특수사역부를 함께 섬기는 이마리아 올림





## 죽음을 초월한 위대한 신앙인

# 빌 브라이트


- 빌 브라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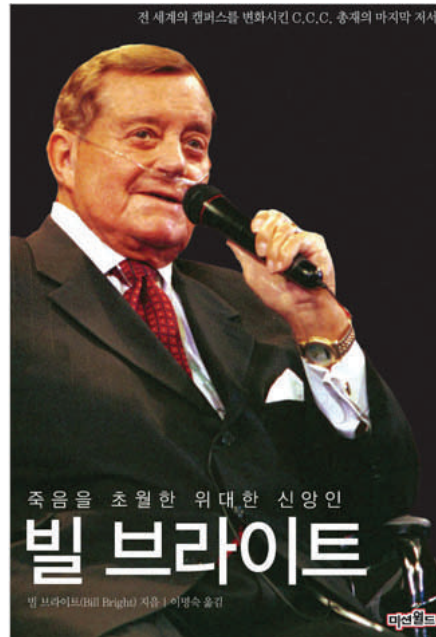
언젠가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물론 있다!

**가족들에게는,**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남기고 싶다. 나는 그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길 소원한다. 또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모든 가족과 그 후손들이 주님을 영접하며,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기를 바란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대가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고 경고하고 싶다.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세력들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장악하고 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당부한다. 세상을 변혁하라!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도 충분치 않다. 그것도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만 한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깨닫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있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따르며 살아가게 되어있다. 당신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군가를 따라야만 한다면, 역사의 흐름을 뒤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다. 비록 그 대상이 인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은 삶의 기반을 형성한다. 만일 당신이 어떤 기초 위에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능력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로 삼길 바란다. 성경만큼 인생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책은 없다. 이세상의 어떤 위대한 철학도 하나님의 말씀에 견줄 수는 없다. 



### 저자 소개: 빌 브라이트(Bill Bright) 박사

빌 브라이트(1921~2003) 박사는 국제대학생선교회(CCC)의 설립자로서 CCC의 총재와 명예총재를 역임하였다. 1951년 그가 설립한 대학생선교회(Campus Crusade for Christ)는 작은 단체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세계 196개 국가에 퍼져 있다. 1921년 10월 19일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 코웨타에서 태어난 브라이트는 노스이스턴 주립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5년 동안 프린스턴 신학교와 풀러 신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그는 1996년 종교 분야의 노벨상이라는 평판을 받는 템플턴상을 수상했다. 그는 템플턴상으로 받은 상금을 전 세계의 금식과 기도 운동을 위하여 기부했다. 빌 브라이트는 100권 이상의 책, 소책자, 비디오 테이프, 오디오 테이프를 만들었으며, 수천 편의 기사와 팸플릿을 썼다. 이들 중 일부는 세계의 주요 언어들로 번역되었으며, 수백만 부씩 배포되기도 했다. 특히 그가 저술한 전도용 소책자 「사영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는 약 25억 부가 배포되었다. 이 책은 그가 소천(召天)하기 1년 전 병상에서 산소호흡기를 낀 상태로 ‘믿음이 식은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저술한 복음전도서이다. 그의 간증을 곁들여 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을 역설한 감동적 저서이다.



# 상 주시는 믿음

- 게리 토마스

현대의 진정한 믿음과 함께 고전 작가들의 지혜를 통찰력 있게 다룬 책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깊이 계시하신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


쏟아지는 축복과 위로에 질려버린 문화 속에서 『상 주시는 믿음』은 성경의 ‘딱딱해보이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얻는 풍성한 혜택을 보여준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삶이 무엇인지 눈을 뜨게 된다면, 당신은 격려를 받고 믿음이 생겨, 알팍한 짐착에서 벗어나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들에 마음을 고정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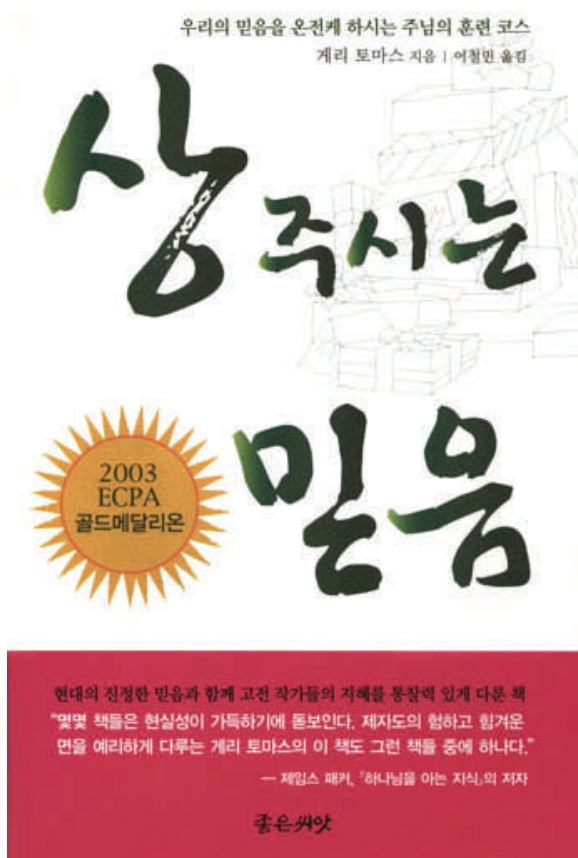
게리 토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열 가지 훈련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영적 비전을 복돋우고 헌신을 든든히 한다. 이런 훈련들을 성

경적으로 이해할 때, 인생에 역경이 들이닥쳐도 허탈감에 빠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러한 시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동행의 깊이가 결정되는 것이다.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닮으며, 다른 사람 중심이 되도록 인도한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닮는 과정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찬란하게 빛을 발한다. 이 믿음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죽고 다른 사람을 앞세울 때 나타난다(2장). 이런 믿음은 우리가 자신의 운명을 개선하려고 하기보다 만족할 때 자라난다(9장). 진정한 믿음은 고난과 핍박(4장), 인내(3장) 그리고 애통(7장)을 통해 강해진다. 물이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가듯이, 이런 믿음은 가장 작은 사람들을 찾아간다(5장). 이 믿음은 원한을 품지 않고 용서를 선택하며(6장), 이 세상에서 행한 우리의 행동이 심판을 받을 것

임을 의식하면서 마음속에 또 다른 세상을 품고 살아간다(10장). 



## 저자 소개: 게리 토마스(Gary Thomas)

전문 저술가요 강사인 토마스는 100개 이상의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웨스턴 신학교의 보조교수다. 웨스턴 신학교에서 영성 형성에 관한 목회학 박사 과정과 석사 과정을 가르친다. 현재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워싱턴 주 벨링햄에 살고 있다. 저서로 『사랑과 행복, 그 이상의 결혼 이야기』(좋은씨앗 펴냄),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CUP 펴냄) 등이 있다.



# 책을 가까이 하십시오

김원기 목사

제가 목회하면서 늘 은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가끔 이 지면을 빌려 그런 분들을 소개하며 교인들을 대신해 고마움을 표시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런 부서와 수고하는 분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교인들이 별 생각 없이 늘 편리하게 이용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서점이고, 또 하나는 도서실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믿는 사람들은 늘 책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책입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좋은 책들을 남겨 주었는지 모릅니다. 좋은 신앙 서적들을 통해 우리는 그 분들이 오랜 세월을 통해 경험하고 연구한 주옥같은 신앙의 지혜들을 거저 얻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교인들이 다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돕기 위해 건물이 생기자마자 제일 처음 자리를 잡은 사역 중의 하나가 도서실이었습니다.

도서실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생기기 전, 교회 초창기부터 있었습니다. 건물이 있을 때는 잘 꾸며진 공간을 사용하기도 했고, 남의 건물을 빌려 쓸 때는 이동식 도서실처럼 예배가 있을 때마다 책상을 펴 놓고 책을 빌려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역사상 도서실이 없었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책이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도서실을 위해서 가장 많이 수고하신 분이 지금 C국에 계신 장요셉 선교사님 내외 분이었습니다. 그 후 여러분이 이 사역에 동참했고, 지금도 매 주마다 예배 후 도서실을 열고, 책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 외의 다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테이프나 비디오테이프를 빌려 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서점입니다. 도서실에서 책을 대여하는 것도 좋지만 역시 직접 구입해 손때를 묻혀가면서 책을 읽는 즐거움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책을 사면 다 읽은 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보관했다 두고 두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구입한 책은 빌려온 책보다 읽을 확




만나도서부 운영위원들

(윗줄 왼쪽부터, 황유상, 전순자, 안금일, 송순복, 김정분)

률이 더 높습니다. 어쨌든 이 서점을 운영하기 위해 또한 많은 분들이 열정을 갖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아, 없는 돈으로 책과 물건들을 구입하여 여러분을 섬깁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 기독교 서점도 있고, 거기에는 훨씬 더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바쁜 이민 생활에 마음이 있어도 서점을 자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고려해 건물에 들어오자마자 곧 서점을 연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이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알뜰히 살림해 교회 보조도 없이 이 두 사역을 섬기시는 분들이 바로 앞서 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고, 그 분들을 즐겁게 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이 자주 이 두 곳을 드나들며 이용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찾으면 찾을수록 섬기시는 분들은 보람을 느끼고 기뻐할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해는 그전 어느 때보다 책을 더 가까이 하며 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 제1회 동화 구연대회

2006년 12월 16일(토)  
플레이 스테이션



잠, 재미있는 만화영화 등 갖가지 유혹을 물리치고, 한국학교로 달려와 9시 정각 예배부터 시작하여 한국어, 특별활동까지 마치면 황금같은 토요일 오전이 금방 흘러가 버린다. 성인 한국어 수업은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이다. 한국어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미국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은 채, 어떤 아이에게는 낯설기조차 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지만, 이렇게 한 학기가 끝날 때는 그동안의 놀라운 성장에 자축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학기에는 성인 한글반과 어머니 종이접기반을 합쳐 130명의 학생이 등록하여, 교사 18명, 도우미 4명 모두 152명이 한 배를 타고 한 학기를 보냈다.

아이들이 가장 즐겁고 재미있어 했던 체험학습은 ‘송편 만들기’였다. 한국의 명절, 추석에 맞추어 실시한 것인데 한국의 맛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또한 이번 학기에는 헬로쉽 한국학교가 자체 주관하여 ‘제 1회 동화 구연대회’를 열었다. 총 15명이 참석하여 학생들이 한국어 학습에 대해 서로 도

# 2006년 한국 학교

## 가을학기를 끝내며


정광미

전반은 기회가 되었다. 대외적인 행사로는 ‘워싱턴 지역 한국학교 협의회(WAKS)’가 주관하는 세종대왕의 한글 제정 기념 글짓기대회에 6명이 참석하여 최우수상을 비롯하여 4명이 입선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저학년은 음절표부터 시작하여 한국어 배우기에 전력을 다하지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동화, 글짓기, 역사, 고전 문학 등도 맛을 본다. 장미반에서 공부한 ‘조침문’은 중학생들에게 한국 고전 문학에 대해 눈을 뜨게 한 예이다. 3교시 특별활동 시간에는 태권도, 한국무용, 장구, 동양화, 종이접기, 아동미술, 서예 등 여러 가지 한국적인 활동을 아이들이 경험하도록 매년 다른 과목을 수강하게 한다.

헬로쉽 한국학교에서는 교장을 비롯한 모든 교사들이 한국어 지도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 의식을 심어주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봉사의식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교사가 되기 위해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모아서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수업이 되도록 애쓰고 있다.

처음에 ‘ㄱ, ㄴ’도 모르던 아이가 한 학기가 끝날 때는 짧은 동화를 읽는 모습에서 머지 않아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도 당당하게 한국말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토요일 오전 한국학교 교사로서 충성할 수 있게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제 5주간의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가정에서 되도록이면 한국어를 사용하고 그동안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각 반에서 받은 방학 숙제를 매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휴식과 함께 2007년 1월 27일에 시작하는 봄학기를 준비할 것이다. 함께 이끌어주고 밀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터키볼 바람속의 희망

해마다 추수감사절 즈음이면 날씨가 쌀쌀하다. 겨울의 침경이어서 그렇겠고 황량한 벌판에서 지내는 시간이어서 더 추운지도 모르겠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는, 헬로쉽교회 주최 ‘터키 볼’ 시합이 있었는데, 한어회중에는 좀 생소한 면이 있어 전할 겸 글을 쓴다.

경기 일시는 항상 추수감사절을 지낸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는데 예전에 영어권과 중고등부 사역자로 섬기던 Young Kim(김영수) 목사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것으로 이제는 여름방학을 마칠 즈음이면 연습이 시작되고, 주변 교회에서 언제부터 신청 접수를 받느냐고 먼저 문의를 해온다.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준비기간도 오래 필요하고, 진행요원도 많이 요구된다. 규모도 단단해져서 올해

남자 16팀, 여자 6팀, 전체 22팀이 출전하였으며 운동장 예약, 참가 신청부터 주심과 부심 교육, 대진표 작성, 시상식과 그 뒷처리까지 여러 부분을 영어권의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섬긴다. 리더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이곳에 와서 함께 어울리다보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목적은 영어권 파송 단기선교팀 후원금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단지 후원금 조성을 떠나 워싱턴 지역의 모든 젊은이가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교회의 반가운 얼굴을 만나고, 흩어져 지내던 선 후배를 만나 마음과 몸이 함께 부딪치며 뜻을 합하는 것은 운동 이상의 효과이며 가치이다. 작전을 짜고 응원 구호를 외치며, 공을 들고 뛰는 가운데 격려와 박수를 아끼지 않는 선배들의 모습이 멋있다. 그에 질세라 더 열심히 움직이고 후배들이 찍은 비디오를 보며 다음 팀과의 작전을 구상하고 따르는 26명의 남자 선수들이 대견하다.

만일 우리교회가 한어권만이 월등한 교회였다면 터키 볼을 주최하고 운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젊은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한계가 있기에. 그렇다고 영어권만이 월등한 교회였어도 아마 쉽지 않았을 것이다. 두 회중이 적절하게 잘 어우러지는 조화이기에 해마다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진행이나 추진은 영어권에서 진두지휘하고, 한어권 소속의 많은 부모들은 뛰는 선수 자녀들을 위해 점심판매 및 따끈한 점심을 대접하는 등 격려와 박수를 아끼지 않는다.

2007년 1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 동안 필리핀 선교를 떠나는 18명의 핵심



멤버와 함께 무릎으로 같이 뛰고 입술이 부르트도록 호각을 분 심판들, 올해는 못 뛰어도 다음에는... 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응원을 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자주 만나지는 못했어도 같은 헬로쉽교회인 버지니아 캠퍼스에서도 와서 응원을 한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황량한 벌판에서 바람을 맞아가며 웃고 뛰는 시간이 미래의 희망을 보는 듯하다. 비록 오늘은 이렇게 출지만 뛰어야 할 목적이 분명하고 살아가야 할 소명이 있다면 우리는 추워도, 더 추워도 싸우고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기에, 그렇게 살아야한다고 배웠고 앞으로 계속 가르칠 것이기에 말이다.

비록 손은 시려워 주머니 속에 조그만 종이 난로를 만지작거리며 움직였지만 보람 있는 벌판에서의 이틀이었다. 올해도 물론 우승은 저 멀리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황량한 바람이 그렇게 밀지만은 않았다.

우리가 기다리는 미래는 분명 따뜻할 것임을 알기에.

<이연일>



# 훈육하라 사랑하라 VII

신율미

지난 호에서, 일관성 있는 규칙을 고수하는 것과 자녀에게 집안일을 맡기는 것 및 자제력을 길러주는 법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자녀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 우선적으로 부모가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높은 자존감을 갖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니다.

## III. 자녀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길

### 1. 당신의 자존감과 그 영향력

#### 1) 자존감의 기초

아이에게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한 첫 단계는 당신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극도로 낮다면, 당신 자녀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모리스 와그너는 ‘특별한 존재로서의 인식(The Sensation of Being Someone)’에서 자존감을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이런 각별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한다는 것도 느낍니다.

이렇듯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내면적 형상(mental picture)을 자아상, 자존감, 자아개념 등으로 부릅니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싫어하고 심지어 증오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존감에는 소속감, 가치의식, 그리고 자신감 이렇게 세 차원이 있습니다.

**소속감**은 자기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지원하는 사람들

과의 일체감, 안정감을 갖고 있음을 뜻합니다.

**가치의식**은 ‘가치있는 사람으로 확신하는 것, 아낌을 받고 존중받는 존재임을 느끼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감**은 ‘성취감을 갖고 있고 자신을 유능한 사람으로 확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긍정적인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차원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노만 라이트는 그의 저서 ‘자아개념의 향상(Improving Your Self-Image)’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형상은 많은 기억의 조각들로 이루어지며, 아주 어린 시기부터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 세상에 대한 개념과 태도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우리 자아개념은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의 응집이다. 그중에는 바람직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우리의 마음은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한다. 그것을 의식 속에서는 기억치 못하더라도 여전히 실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사람의 자아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당신이 어린아이였을 때, 어른들이 당신을 대해 온 방식은 그대로 당신 자신에 대한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부모들의 평가를 그대로 믿게 됩니다. 당신 부모가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며, 아껴주었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라고 결론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부모가 당신을 소홀히 대하고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아무 것도 아닌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돌본 사람들이 마땅히 확인시켜 주었어야 할 가치를 당신에게 부여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2) 당신의 자존감 평가

다음의 두 가지 간단한 테스트를 해 보고 당신의 자존감을 평가해 보십시오. 다른 분들이 한 자존감 진단 테스트 결과를 헬로쉽교회 웹사이트 ‘우리하나되어’ 게시판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 A.** “나는 …하다 (또는 한다)” 형식의 문장 10개가 있습니다. 당신 마음 속에 즉각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근거로 하여 당신 자신을 묘사해 보십시오.

|    |          |     |       |
|----|----------|-----|-------|
| 1  | 나는 _____ | +/- | 소/가/자 |
| 2  | 나는 _____ | +/- | 소/가/자 |
| 3  | 나는 _____ | +/- | 소/가/자 |
| 4  | 나는 _____ | +/- | 소/가/자 |
| 5  | 나는 _____ | +/- | 소/가/자 |
| 6  | 나는 _____ | +/- | 소/가/자 |
| 7  | 나는 _____ | +/- | 소/가/자 |
| 8  | 나는 _____ | +/- | 소/가/자 |
| 9  | 나는 _____ | +/- | 소/가/자 |
| 10 | 나는 _____ | +/- | 소/가/자 |

당신 자신의 서술을 읽어보고 각 특징들이 긍정적인 면인지 부정적인 면인지에 따라 각 문장 끝에 +와 -로 표시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각 특징들이 소속감(소), 가치의식(가), 자신감(자) 중 어느 차원에 속하는 것인지를 ‘소’, ‘가’, ‘자’ 등의 약자로 표시하십시오.

**테스트 B.** 당신의 자아상의 계수는 얼마입니까?

오른편의 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당신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N: 결코, S:가끔, U:자주, A:항상

각 반응을 다음과 같이 수치로 계산해보십시오.

N:0, S:1, U:2, A:3

나의 점수는 ( ) 점이다.

|    |  |         |
|----|--|---------|
| 1  | 나는 위기상황을 비교적 쉽게 다룬다                      | N/A/U/S |
| 2  |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나 자신을 신뢰한다                   |         |
| 3  |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         |
| 4  | 나는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며 도움의 실질적 근원으로 여긴다         |         |
| 5  | 나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생각한다        |         |
| 6  | 나는 정이 많은 편이고 내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두렵지 않다        |         |
| 7  | 나는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         |
| 8  | 나는 자신을 책망하는 느낌을 거부한다                     |         |
| 9  | 나는 나의 불완전함이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믿는다 |         |
| 10 | 나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르기보다는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한다     |         |
| 11 | 나는 내가 믿는 것을 고수한다                         |         |
| 12 | 나는 다른 사람의 세미한 필요에 민감하다                   |         |
| 13 |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높다                |         |
| 14 | 나는 뜻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점을 찾으려고 한다         |         |
| 15 | 나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점을 찾으려고 한다            |         |
| 16 | 나는 정신을 집중하면 대부분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         |
| 17 | 나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좌절과 맞설 수 있다                 |         |
| 18 | 나는 자신이 소중하다고 느낀다                         |         |
| 19 | 나는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         |
| 20 | 나는 다른 사람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         |

- 50~60점: 당신은 자신을 기만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강한 자아의 조짐이 보입니다.
- 35~50점: 당신은 균형이 있고 자존감에 대해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 25~35점: 당신은 자기 가치의식과 불안전성이 반반 정도인데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낮게 매겨진 점수의 항목 중 자아개념 분야를 높이는데 집중하십시오.
- 15~25점: 당신의 자존감을 부추킬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내리 누르는 부정적 형태들을 제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0~15점: 당신은 자신을 끊임없이 부추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거나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을 당신의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당신의 자아상을 평가해 보았으면 다음 단계는 당신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성장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린시절은 끝이 났고 이제 당신은 누군가에게, 곧 당신 자녀의 소속감, 가치의식,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은 다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감정을 좀 더 성숙하게 이루어갈 때, 당신은 자녀들이 그들의 감정을 성숙하게 다룰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필요를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게 됨에 따라 아이들에게도 그들의 필요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알아가고 그것을 개발할 때 당신은 자녀에게도 그들의 능력을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함으로 생기는 성취감과 기쁨을 맛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의사소통의 방법을 터득했을 때 당신은 아이들에게도 더 나은 의사소통의 방법을 지도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소속감을 키워가면 자녀에게도 사랑하고 사랑받는 기쁨과 만족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늘 아버지와의 교제를 즐기며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보면 자녀에게도 그들을 돌보시는 하늘의 아버지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이런 원리를 일러줍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존감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키워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 3) 자존감을 키워가는 길

성장의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생애 안에서와 자존감의 진보에 있어서의 하늘 아버지의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용납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창조주로부터의 무조건적인 용납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 안에 자존감을 세우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족으로 삼으심으로 우리에게 소속감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에게 속하고 그는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애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다른 사람들과 동질성을 느끼기에 그들과의 ‘한가족’ 의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치의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단지 우리의 존재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자신감을 심으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거기에는 성령에 의해 쓰여지고 그의 인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놀라운 자신감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순간순간 가르쳐주심으로 우리의 자신감을 북돋우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2:37에 있는 대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따라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존감을 위한 우리의 추구를 확고히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의 것이고 그에게 속해있음을 압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에 우리가 의롭고 받으실 만한 존재임을 압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도 압니다. 우리는 선한 목표가 있고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며 그의 영광을 위해 영위토록 그와 함께 살 것을 압니다.

하나님만이 가치의식과 자신감을 동반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가치의식을 심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죄인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를 씻어가시고 우리에게 그의 의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8:1)”

진정한 자신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매일의 삶에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나눌 때에 생겨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를 세워줄 때 진정한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 4) 자존감의 성장을 위한 개인적인 계획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첫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누구이며, 당신의 인생의 목표와 당신이 상속할 유산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 로마서 3:23, 로마서 6:23, 로마서 5:8과 요한복음 3:36, 요한복음 1:12을 참조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좌절케 하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고백하고 버리고 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경건의 시간은 하루 중 당신이 하늘의 아버지와 가지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분께 이야기하고 그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 당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갈 때 당신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일구어가는 것입니다. 성

경말씀은 당신을 강하게 하고, 지도하며 갈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당신의 삶은 매일 변해갈 수 있습니다.

매일의 경건의 시간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 시도해보십시오.

1. 준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염려나 생각들을 몰아냅니다. 잠시 세상을 뒤로 두고 주님과 있도록 하십시오.
2. 기도: 월별 기도목록을 만들어 기도시간마다 마땅히 기도해주어야 할 사람과 기도제목을 기억하는데 활용하십시오. 매달 초에 새 목록을 만드십시오.
3. 말씀 묵상: 성경의 한 부분을 묵상합니다. 매일 몇 구절을 읽되 본문을 천천히 두 세 번 읽으십시오. 그 말씀에서 당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4. 경건의 일기: 매일 ‘영적 일기’를 기록하십시오.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적고 당신이 배운 것, 당신의 느낌, 적용한 말씀을 기록하고 그날 주님을 향한 특별한 기도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주로 당신의 자존감에 대한 고찰과 자존감을 키워나가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를 훈육하게 될 당신의 자존감이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목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다음 호에서부터는 실제적인 자녀들의 자존감을 위한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 공부하기로 합니다. 



## 교회행사

### ■ 1월 1일(월) - 10일(수)

신년작정 새벽기도회

### ■ 1월 5일(금) - 7일(일)

한마음 수양회

장소: 은혜의 동산

### ■ 1월 6일(토) - 20일(토)

영어회중 필리핀 단기선교

### ■ 1월 20일(토)

특수선교부 눈썰매 나들이

### ■ 1월 21일(일)

헌아식

### ■ 1월 21일(일)

새가족 환영회



헬로쉽교회 사진기자 공개 모집 (크리스마스 뮤지컬에서)

## 헬로쉽의 어느 날

■ Prime Time의 3대: Prime Time (일명 자전거 타는 그룹)에 속한 최순배 집사가 무릎을 다쳐 그룹 소속의 이정국 집사와 함께 병원을 갔다. 모자를 눌러 쓴 이정국 집사를 보고 최순배 집사에게 의사가 물었다. “너의 아들이냐?” 일주일 후, 이인영 목사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점장은 이인영 목사를 보고 최순배 집사에게 의사가 물었다. “너의 아버지냐?”

■ Thank You: CCS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하는 김정분 권사에게 크리스마스를 맞아 학생들이 찾아왔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작은 선물을 들고서 이를 본 주위의 사람들, “학생들이 선물을 가져오면 잘 받으세요, ‘이런걸 뭘 준비하느냐 그냥 와도 괜찮다’ 이런말 하지마세요” 하자 김정분 권사 “걱정하지마, 여차피 나는 Thank You 소리만 하니까.”

발행인 : 김원기  
편집위원 : 오장석, 이연일, 오진이  
지용한, 복진웅, 이창환  
기자 : 정선희, 안금일  
타입세팅 : 안선희  
인쇄 : KOREA Monitor

Washington

New Covenant



Fellowship Church



NEW  
COVENANT  
FELLOWSHIP  
CHURCH

Non Profit Org  
U.S. Postage  
Paid  
Suburban Md  
Permit No 3035

18901 Waring Station Rd., Germantown, MD 20874 (301) 444-3100 Fax (301) 444-3115 <http://www.fellowshipusa.com>